새로운 각오로 새출발하는 한해가 되기를…

이 권 식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회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2005년 한해를 뒤로하고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시장은 1등만이 살아남는 1등 상품, 1등 브랜드의 지배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경영, 브랜드 경영시대에 패키지디자인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강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키지디자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협회는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굿 패키지디자인 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회사업의 일환으로 중요하고 의욕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내유일의 패키지디자인 공모전인 '대한민국 패키지디자인 대전(PACKSTAR)' 을 비롯하여 포장디자인을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선배디자이너와의 만남을 통해 21세기 포장디자인의 역할과 발전을 모색하는 '대학생 패키지디자인 썸머캠프', 특히 금년 2005 APD SEOUL 컨퍼런스는 협회 주최로 남이섬에서 성공리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KPDA, JPDA, SPTA, TPDA의 지속적인 화합과 아시아 패키지디자인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임과 동시에 디자인 경쟁력 시대에 세계문화의 트랜드를 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변함없이 제반사업들의 성공적인 진행과 국가 디자인기반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우리 패키지디자인 분야의 역량과 가치를 한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국가 발전을 위하고 기업과 디자이너간의 교류와 산업계와 학계의 충실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보다 선진화된 패키지 디자인업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새로운 각오로 마음을 다지고 새출발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ko